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도 12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9.02(수)

집단교섭 재개.. 리어코리아 임금 제시안 의견접근

회사측 3회·노측 2회 정회 끝 제시안 수용...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12차 집단교섭이 9월 2일 (수) 13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리어코리아 사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교섭에는 노측 정진홍 지부장 외 19명, 사측 우영산 업 김대근 본부장 외 12명이 참석했다. 교섭 성원을 확인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교섭대표 모두발언으로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중앙교섭을 담당한 현대성우솔라이트와 디에스시가 고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진 만큼 임금교섭은 속도감 있게 진행 하면 좋겠다”며 “다음주부터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성실히 교섭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지난 8월 20일 금속노조 차원에서

진행한 현대자동차 부품사 단가인하 요구 관련 집회와 기자회견도 언급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이 현대자동차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대자동차가 부품사에게 단가인하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여론이 좋지 않아 철회했다고 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 간사를 통해 확인해 말씀해주면 된다”며 “금속노조는 관련해서 국정감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단가인하 요구 철회가 사실이라면 금속노조의 계획을 변경할 것이고, 만약 현대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부당한 단가 인상 관

련한 내용을 널리 알릴것이다”라고 밝혔다.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임금교섭 첫 시간인 만큼 임금은 직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사측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며 “이번 임금교섭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리어코리아 2026년 임금인상 제시안이 제출됐고 5차례 정회 끝에 노측은 리어코리아 임금인상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진홍 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견접근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히며 이어 “현대차지부가 북미로 물량을 빼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리어코리아는 외국자본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측이 임금제시에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후 추가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차기13차 교섭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리어코리아 제시안(의견접근)

구분	1차 제시안 (09.02)	2차 제시안 (09.02)	3차 제시안 (09.02)	4차 제시안 (09.02)
시급	100원	100원	100원	100원
타결일시금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8+8 지연 위로금	200만원	220만원	250만원	250만원
특근				1일

